

“다울마당, 형식적 회의에 그쳐”

김남규 전주시의원, 폐지 주장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이 전주시가 운영하는 다울마당이 1회성 형식적 회의에 그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규 시의원(송천1동)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운영하는 총 25개 다울마당 가운데 시민다울마당, 한옥다울마당, 전주농업다울마당 등은 한 차례 회의만 진행, 형식적 행사에 그치고 있다”며 “구체적 로드맵도 없이 의욕만 갖고 시작한 다울마당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다울마당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전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으로 동문예술거리, 전북대 대학로 문화거리사업이 예산 지원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주미래유산 프로젝트 주민설명회가 형식적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민간커버넌스 추진”으로 전주미래유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주시 국가공모사업(문화관광체육국)도 1회성 국가공모사업이 많고 중복사업도 많아 막대한 예산의 전주시비가 들어가고 있



다”며 “시민의 혈세가 유사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새로 지은 중인리 유소년 축구경기장도 관중석이 펜스밖에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축구장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전광탑 조명등이 들어오는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조례 제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슬로시티 11곳 중 슬로시티 관련 지원 조례가 제

정된 곳은 총 8곳으로, 이들 지역은 조례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주시가 슬로시티로서 가치와 철학을 담아내는데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전주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슬로시티 브랜드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에도 전주시 슬로시티와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면서 “국제 슬로시티 재인증 성과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주만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슬로시티 발전 방향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풍선에 희망을 실어 날려요
원하며 풍선을 날리고 있다.

21일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회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행사가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 참석자들이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모금 목표 달성을 염

전주 청소년들이 자전거도로 만든다

시, 자전거 통학 중학생 대상 정책수립 간담회 개최

전주시가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자전거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시는 21일 전주시청에서 자전거로 통학하는 전주시내 32개 중학교 학생 33명과 함께 자전거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자전거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참석한 학생들은 평소 자전거를 이용했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앞으

로 전주시 자전거 정책에 바라는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자전거로 통학하면서 느낀 전주시내 자전거도로의 불편사항과 자전거 안전교육의 필요성 검토 등이다.

시는 이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 이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달에는 자전거로 통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별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전주만의 안전

하고 편리한 자전거 정책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에너지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걸는 도시 △빛물재이용 등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손꼽힌다.

이에 시는 올 연말부터 자전거타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주시 33개 동 주민들이 출퇴근시 또는 권역별 합동순찰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시설의 불편사항과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발굴·건의하는 자전거 시민패트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전주시 온두레공동체가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나섰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온두레공동체로 활동 중인 ‘전주한옥마을쌈생부각’은 이날 전주시를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13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중 일부이다.

이 자리에서 이자미원국 전주한옥마을쌈생부각 대표는 “우리 전주한옥마을쌈생부각 공동체는 지난 2년간 전주시와 함께 성장한 공동체로, 형편이 어려운 전주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소외계층에게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소외계층에게도 온정의 손길이 닿아 전주 시민 모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이웃과 함께하고자 성금을 기탁해주신 전주한옥마을쌈생부각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며 “지속적인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상생과 협력, 나눔의 정신을 전주시 곳곳에 퍼뜨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이웃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전주한옥마을쌈생부각은 한옥마을을 거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김부각과 고추장 등 전통장류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물꼬리풀 복원 ‘환경부장관상’

맹꽁이 서식처 복원도 수상

전주시는 환경부와 (사)한국 환경계획·조성협회가 주관한 제16회 자연환경 대상 공모전에서 전국 자치단체 45개 응모작중 인후동 기린공원에 ‘멸종 위기종 II급 생물 물꼬리풀, 맹꽁이 서식처 복원사업’으로 응모해 최우수상(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10월 중의 환경관계 전문가 6명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심사한 결과, 멸종위기종 II급 생물인 전주물꼬리풀 식재, 맹꽁이 서식처를 복원하고 다양한 체험 시설물의 공간 배치와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해 심사 위원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호평을 받아 최우수상인 환경장관상으로 선정됐다.

이곳 부지는 원래 불법경작으로 인한 산림훼손, 불법 쓰레기가 상시 적치되어 그동안 환경저해 사각

지대로 방치되어 오던 지역으로 전주시는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총 6억2500만원(국비 5억50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투입, 지난해 8월 착공해 같은해 12월 준공한 바 있다.

시는 멸종위기종 II급 생물인 전주물꼬리풀 식재, 맹꽁이 서식처 및 훼손된 산림 복원사업을 통해 맹꽁이 및 전주물꼬리풀 서식처 복원을 위한 습지 500㎡, 맹꽁이의 먹이 서식지 공간 및 경사지 산림복원, 생태학습장 및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처 제공과 도시생태계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사업 이후 이 공원은 인근지역 시민들에게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생태적인 휴식공간은 물론 아이들의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체납 상·하수도 요금 징수 나서

전주시가 체납 상·하수도 요금을 강력 징수하고 나섰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는 2016년 결산대비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는 5개반 24명으로 구성된 상·하수도 사용자 체납 단수반을 운영해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

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과 동시에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소유재산을 조사해 압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축구 경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FIFA U-20월드컵 성공기원

전주시의회, 친선축구 경기

전주시의회가 내년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축구 붐 조성에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친선축구 경기

를 통해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며 개막을 180여 일 앞둔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친선경기에 나선 강동화 전주시의회 축구동호회장은 “앞으로 월드컵 붐 조성을 통해 FIFA U-20 월드컵 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개막전 등 전주에서 열리는 경기에 대한 관중 확보에도 적극 협력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 결제

Kakao Pay

PAYCO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10만원

▲이해 ▲초과

전액 세액공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1천억원